



화끈한 '거포 대결' 주말 광주 달군다

한국 男배구 세계최강 브라질과 월드컵 빅뱅 내달 3~4일 이틀간 오후 2시 염주실내체육관

월드컵 축구에 이어 월드컵 배구 열풍이 광주에 불어온다.

세계 최대의 배구축제인 2010 월드컵 국제남자 배구대회가 내달 3~4일 이틀간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광주경기는 한국대표팀과 세계 최강인 브라질의 한판 승부이다.

브라질은 세계랭킹 1위이자 올해 월드컵 우승팀으로 명실상부한 최강팀이다. 광주지역 배구팬들에게는 세계 정상급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워 있는 남자배구인 만큼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활력 넘치는 명승부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팀을 이끄는 신치용(삼성화재) 감독은 "한 수 배운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세계랭킹 16위인 한국은 브라질을 비롯 불가리아(6위)·네덜란드(28위)와 함께 A조에 속해 있어 일찌감치 힘든 여정이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11차례 이 대회에 참가한 한국은 1995년 6위가 최고 성적이다. 결승라운드에 오른 것도 1995년 한 차례뿐이며 2008년에는 1승을 올리는데 그쳤고 지난해에는 3승을 거두며 가능성을 보였다. 나 순위는 14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한국은 패기만큼은 여느 팀에 뒤지지 않는다. 지난 시즌 V리그에서 삼성화

재를 우승으로 이끈 주역인 최태웅·여오현·고희진을 필두로 신영수·한선수·김학민·공동진(이상 대한항공), 김요한·하현웅(LIG손해보험)·문성민(할복뱅크) 등 13명이 태극후원을 불사를 기세이다.

광주 배구 팬들도 이번 대회에서 태극전사들이 특유의 자력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 예선인 대륙간 라운드는 내달 9일 까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열린다. 내달 21일부터 25일까지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결승라운드가 펼쳐진다.

조별 순위는 승점으로 가려지며 3-0, 3-1, 3-2로 이기면 승점 3점을 얻으며 3-2로 끝난 경기의 경우 이긴 팀은 2점, 패한 팀은 1점을 획득한다.

한편 한국대표팀은 지난 28일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계속된 A조 예선 8차전에서 강호 불가리아에 세트스코어 1-3(29-31, 25-25, 22-23, 25-25)으로 무릎을 꿇었다.

대표팀은 지난 5일 네덜란드와 경기를 시작으로 8경기에서 단 1승도 올리지 못해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들어 불가리아와 4 경기를 모두 내주면서 통산 15연패를 당했다. 상대 전적은 3승 2패가 됐다.

서울신문 기자 swseo@kwangju.co.kr



지난 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10 월드컵 국제배구대회 한국과 네덜란드의 2차전에서 한국 문성민(뒤)이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LPGA 한국군단 '7월 대반격'

'한국 텃밭' 코닝클래식 내일 개막

신지애·김승희·최나연 우승 도전

'이대로 밀릴 수는 없다'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되는 7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군단이 우승 사냥을 시작한다.

수년간 LPGA 투어에서 막강한 실력을 펼친 한국 선수들은 유난히 7월부터 연승을 기록해 더위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상반기에 3승을 합작했지만 미야자토 아이(일본)가 4승, 크리스티 커(미국)가 2승을 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관도를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국 선수들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7월의 첫 대회는 1일(한국시간) 저녁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리아 하이랜드 메도우 스포츠장에서 열리는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으로 시작한다.

1984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

은 무려 7승을 올렸다. 이 중 박세리(33)가 다섯차례나 우승컵을 차지했고 김미현(33)이 2006년 우승했다. 지난해에는 이은정(22)이 연장전 끝에 정상에 올라 한국인 챔피언의 계보를 이어갔다.

올해는 박세리가 출전하지 않아 아쉽지만 신지애(22·미래에셋), 김승희(22·하이트), 최나연(22), 박민비(22·이상 SK텔레콤) 등이 출전해 우승컵을 노린다.

특히 신지애는 맹장 수술을 받고 나서 출전한 지난주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올라 샷 감각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알렸다.

일본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우승한 뒤 아직까지 LPGA 투어에서는 우승이 없는 신지애가 미국 대회 첫 승과 세계랭킹 1위에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이번 대회에는 랭킹 1위에 올라선 커와 2위 미야자토가 다음 주 열리는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을 준비하느라 모두 출전하지 않아 신지애로서는 1위 자리를 탈환할 좋은 기회다. /연합뉴스

'피겨 황제' 플루센코 아이스쇼 무단 출전 '뒤편'

ISU, 대회 출전권 박탈

'피겨 황제' 예브게니 플루센코가 국제빙상연맹(ISU)의 허락없이 아이스쇼에 출연했다가 선수 생활을 마칠 위기에 처했다.

AFP통신은 29일(한국시간) ISU가 플루센코의 대회 출전권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 3~4월 플루센코가 세계선수권대회에 불참하고 ISU의 허락 없이 러시아 등에서 아이스쇼에 출연했기 때문이다.

당시 오타바로 친판타 ISU 회장은 6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올림픽을 마



친 선수들이 대거 세계선수권대회에 불참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SU가 결국 플루센코의 대회 출전권을 박탈하면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플루센코의 연기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플루센코는 올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에반 라이사책(미국)에 뒤져 은메달에 머물고서 관중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고향에서 금메달을 되찾아오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이번이 마지막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39·미국)이 올해를 끝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투르 드 프랑스(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대회)에 더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29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이 나의 마지막 투르 드 프랑스가 될 것"이라고 짧막하게 전했다.

암스트롱은 이어 "그동안 아주 좋은 경주를 해 왔다"며 "이번에도 3주 동안 훌륭한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암스트롱은 고향임을 딛고 1999년~2005



년 사이 처음으로 투르 드 프랑스를 연속 우승하면서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썼다. 2005년 은퇴한 뒤 2008년 복귀해 지난해 투르 드 프랑스에서 3위를 차지했다. 암스트롱은 지난 대회가 끝난 뒤 결성한 라디오스카라를 팀을 이끌고 4일부터 열리는 올해 투르 드 프랑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면 세대교체...패기로 푹푹 문쳐

■ 한국팀은

지난 2006 도하아시아게임 우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난 4년 동안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2007·2009 아시안남자선수권 3위, 월드컵 11위의 초라한 성적에다 월드컵에선 2006년 10위, 2007년 9위, 2008년 13위 그리고 지난해 14위로 부진의 늪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한국대표팀은 지난해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은 특유의 패기로 푹푹 문쳐 세계 정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작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에 2번, 세르비아에 1번의 승리를 차지한 대표팀은 비록 14위를 차지했지만 세계 정상급팀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문성민·이경수·박철우·김요한 등 여대 최강의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팀은 이번 광주경기에서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팬들에게 멋진 승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월드리그 통산 8회 우승 '세계 최강'

■ 브라질팀은

브라질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팀이다. 이탈리아와 더불어 월드컵 8회 우승의 자력을 지난 브라질은 지난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홈팀 세르비아를 물리치고 세계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

베르나르도 레전드 감독이 이끄는 브라질은 길베르토·세르지오·로드리고 등 올림픽 우승 때의 주역들이 이번 대회에서도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2008년도에 팀을 재구성, 수많은 국제대회 우승과 베이징 올림픽 준우승 등 세계 최정상의 기량을 펼쳐왔다.

특히 브라질은 통산 119승 11패의 기록과 8번의 월드컵 그 석권했으며, 올림픽 (1992년, 2004년)·세계선수권 (2002년, 2006년)·월드컵 (2003년, 2007년)에서 각각 두 번씩 우승했다. 그리고 그랜드챔피언스컵은 총 3회 차지했던 최강팀이다.

1990년 창설...대륙간 라운드방식 진행

■ 월드컵은

세계남자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배구연맹(FIVB)이 창설한 최상위 남자 국가 대표팀간의 대회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대회로 꼽히고 있다.

지난 1990년 창설된 대회로 매년 개최되어온 이 대회는 국가대표간 대륙간 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은 올해 대회까지 총 12회 참가했다.

총 4개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열린다. 대륙간 라운드는 각 조별 24경기로 총 96경기가 열리고, 결승라운드에선 10경기가 펼쳐진다.

결승라운드는 각 조 1위팀과 초청팀으로 구성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다.

A조는 브라질·불가리아·네덜란드·한국, B조는 세르비아·이탈리아·프랑스·중국, C조는 러시아·미국·핀란드·이집트 그리고 D조는 쿠바·아르헨티나·폴란드·독일 로 편성됐다.

법률경제전문법인 인미음법률경제(주)
"지역별, 용도별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원하는 물건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치 : 광주의 전남입문 4층
062) 525-8880
010-8640-3990

지역	소재지	건물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전남	광주	1482/998	22	1594천원	롯데캐슬1단지
	광주	1504/520	62	4935천원	단풍
	광주	27/78	1	1965천원	상가주택
	광주	207/186	1	1965천원	단풍
	광주	317/220	17	9859천원	6층건물
	광주	237/1028	10	9859천원	5층건물
	광주	281/1112	16	9859천원	4층건물
	광주	63/78	1	425천원	전세10년이상
	광주	107/144	1	825천원	2층
	광주	134/112	3	2975천원	단풍
전남	광주	982/193	7	9859천원	4층건물
	광주	301/525	4	3935천원	3층건물
	광주	152/233	1	625천원	3층건물
	광주	943/1283	7	9859천원	4층건물
	광주	612/321	2	9859천원	2층건물
	광주	440/1011	10	9859천원	4층건물
	광주	202/191	2	9859천원	4층건물
	광주	202/192	2	9859천원	4층건물
	광주	121/182	4	9859천원	4층건물
	광주	217/444	2	9859천원	3층건물
전남	광주	1126/1827	3	9859천원	2층건물
	광주	1835/616	2	9859천원	1층건물
	광주	982/2273	13	9859천원	4층건물
	광주	2776	1	9859천원	1층건물
	광주	145983	6	9859천원	4층건물
	광주	15789	1	9859천원	1층건물
	광주	2776	1	9859천원	1층건물
	광주	2776	1	9859천원	1층건물
	광주	2776	1	9859천원	1층건물
	광주	2776	1	9859천원	1층건물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큰놈'을 소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인기폭발 "양코" 지구력향상!!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히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통신판매 신고증 제1188호) (G-FLOW)

1577-4101
010-8952-4114, 010-8558-4114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이 최대의 고민해결!

중간에 시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르...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 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 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99,000원

1588-4102
010-5296-4114, 010-8952-4114